

한국도서관협회 제21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



국민이 바라는 도서관!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

I 교육

국민이 바라는
평등한 배움의 출발선, 학교도서관!

모든 아이가 평등하게
배울 수 있게
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
배치해주세요

II 문화

국민이 바라는
지역사회 문화 거점, 공공도서관!

우리 동네,
가까운 독서·거점시설인
공공도서관에
투자해주세요

III 정보복지

국민이 바라는
포용적 도서관

도서관을 장애인,
고령층, 저소득층 등
정보취약계층을 위한
고립예방 플랫폼으로
육성해 주세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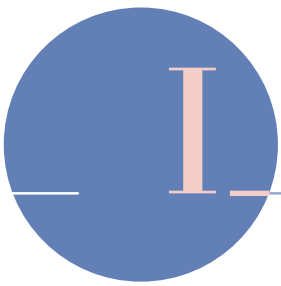
IV 법·제도

국민이 바라는
정보와 기록의 거점 마련

도서관이 정보와 기록의
거점 역할을 할 수 있게
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



한국도서관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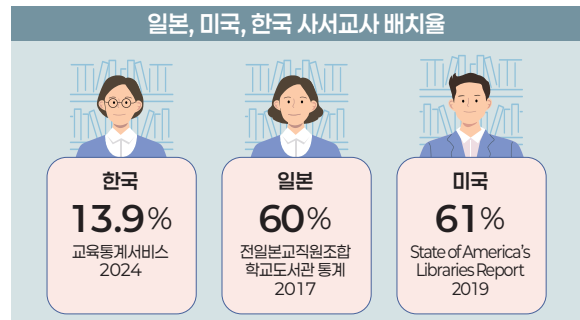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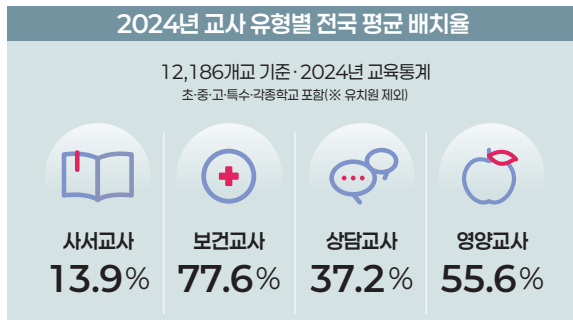
교육

국민이 바라는 평등한 배움의 출발선, 학교도서관!

- 지역 차이는 있어도, 교육 차이는 없어야 합니다.
- 모든 아이가 평등하게 배울 수 있게 **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해 주세요!**
- 어린이와 청소년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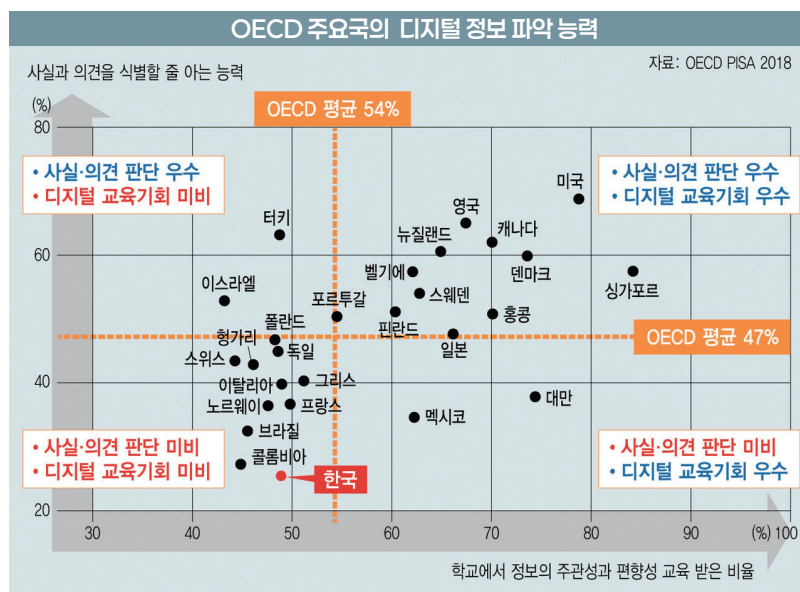
○ 책만 있다고 도서관? 학교도서관에는 반드시 사서교사가 있어야 합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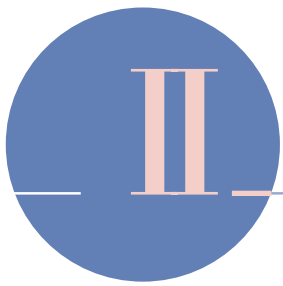
- 사서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13.9%로, 학교도서관 이용의 격차 발생
- 사서교사는 보건·상담·영양교사 배치비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
- 자기주도학습 및 독서역량 강화는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도서관에서 가능



○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, 학교도서관에서 키워주세요.

- 한국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은 최하위
- 사실과 의견의 식별 능력, 정보의 주관성과 편향성 교육 기회 모두 최하에 해당
- 학교도서관에서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교육프로그램 제공





문화

국민이 바라는 지역사회 문화 거점, 공공도서관!

우리 동네, 가까운 독서·거점시설인 공공도서관에 투자해주세요.

1. 도서관에서 더 많은 책을 구입하면 저자·출판사·서점과 독자가 함께 성장합니다.

지역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도서관 예산을 늘려주세요.

2. 독서와 문화서비스, 사서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.

공공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서 배치를 늘려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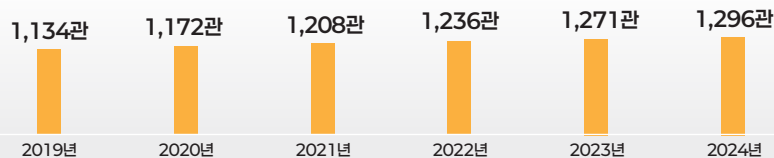
○ 좋은 책과 저자를 만날 수 있는 공공도서관, 도서 구입 예산을 대폭 증액해 주세요.

-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은 3조 3,459억원으로 24년 대비 12억 여원 감소

- 정부의 도서관 관련 예산은 126억 2,300만원, 독서 관련 예산은 항목 삭제로 0원

공공도서관 현황

도서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2024년 기준 1,296관임



출처: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

국민 1인당 장서(인쇄자료) 수

2023년 국민 1인당 장서(인쇄자료) 수는 전년대비 1.3% 증가하여 2.41권임



출처: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

○ 사서 배치만이 지역사회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.

- 도서관의 역할은 확대되고 있으나, 사서 배치는 제자리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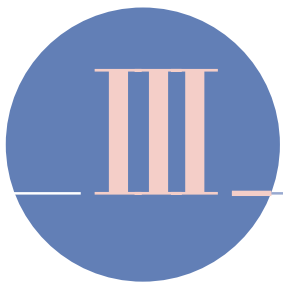
- 사서자격증 소지자는 11만명이나,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는 15,000명 수준

1관당 사서(정규직) 수

1관당 사서(정규직) 수는 연도별 차이가 거의 없으며, 2023년 기준 4.6명 임



출처: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



정보복지

국민이 바라는 포용적 도서관

도서관은 장애인, 고령층, 저소득층 등 사회적 고립 및 정보취약계층들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고립예방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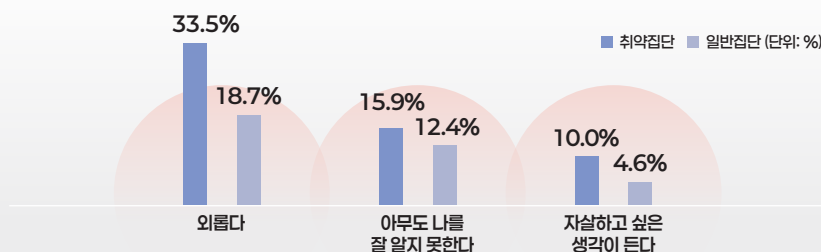
1. 정보취약계층도 일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고, 사회적 독서가 가능하도록 **도서관 시설과 예산**을 확대해주세요.
2.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**시설과 장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충**해 주세요.
3. 장애인 도서관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**국립장애인도서관 청사**를 건립해 주세요.

○ 사회적 고립 취약계층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확대와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!

- OECD 주요국의 사회적 고립도 조사에서 한국이 20.6%로 2위, 50세 이상은 1위
- 취약 집단의 33.5%는 외롭다고 느끼며 10명 중 1명은 자살을 생각
- **스코틀랜드 등은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면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 강조**

외로움, 고독, 자살 총동

* 취약집단의 33.5%가 평소 "외롭다"고 인식하여 일반집단이 외롭다고 느끼는 비율(18.7%)에 비해 높게 나타남. 특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를 묻은 질문에 취약집단의 10명 중 1명은 "그렇다"고 응답하여, 일반집단의 4.6%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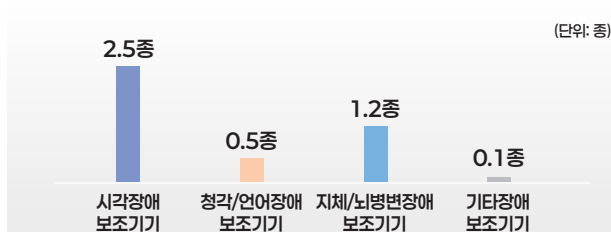


출처: 한국행정연구원. (2023). 사회통합실태조사로 살펴본 취약집단의 사회적 고립 (데이터 브리프 통권 19호). 한국행정연구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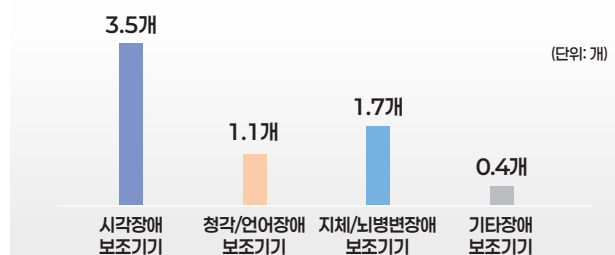
○ 장애인도 일상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!

- **국립장애인도서관은 독립된 청사 없이 국립중앙도서관 6층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움**
- 공공도서관 1,236개관 중 BF(Barrier Free,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) 본 인증을 취득한 도서관은 142개관으로 전체의 11.48%에 불과하며, 장애인 독서기기의 보급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의 실질적 실행력 확보 방안 강구 필요
-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 필요

전체 보유 기기 종류 4.3종



전체 보유 기기 대수 6.4개



출처: 국립장애인도서관. (2023). 『2023년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실태조사』



법·제도

국민이 바라는 정보와 기록의 거점 토대 마련

정보와 기록의 거점으로서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세요.

1. 국가 R&D 경쟁력 강화 및 지식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법·제도 정비와 국가 지원을 강화해 주세요.
전문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한 「전문도서관진흥법」을 제정해주세요.
2. 공공도서관 등록제 및 지적자유 등 **규제가 되는 법 내용을 발전적으로 개정**해 주세요.
사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개선해주세요.
3. **사서자격제도**를 개선하여 사서 전문성을 강화해주세요.

○ **전문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세요.**

- 전문도서관은 정부출연연구소,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한 도서관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을 수집·관리, 제공
- 전문도서관의 시대적 역할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전문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부재

○ **「도서관법」,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「저작권법」 등을 정비해 주세요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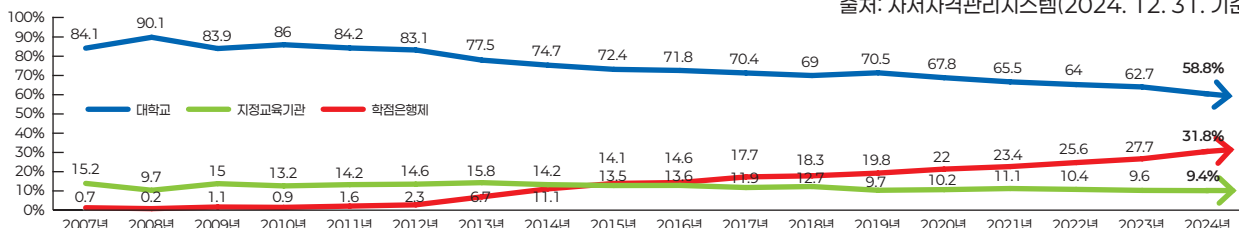
- 공공도서관 등록제는 2022년부터 시행된 「도서관법」에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, 2024년 12월 현재 공공도서관 825개관(65.0%) 등록, 경기도와 충청북도는 등록률이 30% 내외로 지역별 격차 발생
- 당초 입법취지는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함이었으나 **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악용**
- **공립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을 두고, 등록하도록 하였으나 폐관으로 이어지는 사태 발생**
- **빈발하는 도서관 검열 등에 대한 법 조항이 미비함에 따라 지적자유 관련 조항 추가 필요**
- 국가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성과는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
- (국가연구개발혁신법) 국가 예산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은 오픈액세스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신설
- (저작권법) 인공지능 기술 기반 연구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**대학, 연구기관 등이 교육·연구 등의 목적으로 정보분석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·전송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**
-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필수 핵심 전자저널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원 확대
※ 국가 R&D 예산(30조원)의 1%(3천억원)을 핵심 전자저널 국가라이선스로 재정 투입 시 국가 R&D 경쟁력 강화 및 대학·지역 간 정보 격차 해소 가능

○ **전문성을 잃어가는 사서자격제도를 개선해 주세요.**

- 사서는 지식과 정보, 독서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으나 최근 **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육과정의 무분별한 확대**
- 이는, **국민을 위한 지식정보 제공 및 도서관 향유 수준의 저하, 비정규직 양산 등의 문제로 연결**

교육기관별 사서자격증 발급 추이(2007~2024년)

출처: 사서자격관리시스템(2024. 12. 31. 기준)



-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적 역할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도서관이 국민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**자격기준 개선, 보수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제도 확립 필요**

한국도서관협회는,

● 성격 및 창립

- 전국도서관 및 사서가 회원인 사회단체법인
- 국고보조금수혜기관(법정단체)
- 공익법인(지정기부금단체)
- 창립: 1945년 8월 30일

● 설립 목적

- 「도서관법」 제18조에 의거 도서관의 발전과 상호간의 자료교환, 업무협력과 운영·관리에 관한 연구,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국민과 도서관의 공동이익 증진

● 주요 사업

- 도서관문화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 및 현안문제 대응
- 《도서관문화》 등 기관지 및 도서관 관련 각종 도서등의 간행
- 도서관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
- 도서관 확충과 운영수준향상에 관한 컨설팅
- 도서관권리와 도서관인 윤리향상
- 도서관주간 등 도서관과 독서운동, 인문학 진흥사업 추진
- 도서관 관련 전문도서관 설치와 운영
- 도서관 관련 통계의 관리
- 국내외 도서관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와협력
- 한국도서관상 등 표창 등에 관한 사업
- 정부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도서관사업
- 도서관운영을 위한 각종기준 및 표준 등의 제정과 자료선정 도구의 작성·보급
- 국민의정보와 디지털활용 역량강화 지원 및 확산을 위한교육과 활성화 관련사업
-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

도서관과 함께한 80년,
미래를 여는 지식의 길
한국도서관협회

(06579)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
대표전화 02-535-4868